

## 부천대학교 밀레니엄센터, 체육관

### Bucheon College millennium Center, gymnasium

대학의 캠퍼스는 대학활동을 담고 있는 대학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유기체이다. 대학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속도나 규모에 비해 캠퍼스의 물리적 대응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대학구성원들의 활력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과거대학들이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기인한 나머지 시설의 질적 환경구축 보다는 외적크기에 집중한 캠퍼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관심사가 대학의 발전을 저해한 요인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조성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학생수의 감소 추세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천대학은 수도권 대학중에서 그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로 학생 및 복지시설의 건축과 체육관 및 일부 기존건물의 리노베이션과 대학의 학생복지시설과 행정서비스기능, 교직원의 후생 복지시설이 주기능이다. 또한 체육관 및 강의실동의 증축과 리노베이션은 기존건물에 대한 성능개선의 시도이다. 기존건물을 잘 살리면서 증축되어지는 이 계획에서 차용되어진 디자인 언어는 다음과 같다.



## 중첩의 형태

현대 철학은 주체가 본질이 아니라 주체의 바깥 그리고 그 바깥에서 주체와 관계 맺는 타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조로 변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성은 철저히 주체철학이었으며 근대가 이룩한 성과는 인정해야겠지만 주체 이외의 타자는 모든 가치와 의미 기준에서 변방으로 밀려나있고 이것은 인간소외와 자연파괴, 파시즘과 같은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비인간성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 준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새로운 사유혁명은 이런 주체성, 주체철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바깥의 사유, 타자의 담론, 차이의 사유이다. 현대성을 총체적으로 규정지으려는 네트워킹적 체계이다. 소위 구조주의 철학은 각 학문의 제영역이 서로를 공진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형성된 사조이고 추

상적 가설이나 형이상학적 논리구조가 아닌 구체적이며 과학적 사유패턴이다. 주체가 본질로 작동되어진 서구 이원론적 사유로 파생된 비인간성과 왜곡 사회의 기형적 현상을 고발한 미셸 푸코의 광인과 광기의 계보적 통찰은 이미 그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설명은 늘 기본적인 대립항으로 인식되어왔던 대상과 주체의 이분법을 버리고 이 사이에 제3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3차원이 구조이다. 이것은 대상과 주체의 일정한 관계맺음을 지배하고 대상과 주체는 제3의 공간을 통해서 관계 맺는다. 현대는 관계맺음과 그물망의 통합적 구조이다. 즉 다양한 주체가 중층적 구조로서 중첩되어져 형성된다. 이 사회는 하나의 단서로서 현상을 규정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구조이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현상은 토지가 비싸기 때문만이 아니다. 교통, 교육, 정보, 문화와 같은 총체

적 중층구조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알튀세는 중층 개념을 가지고 사회구성 체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의 복잡성 뿐만아니라 그 관계가 표방하고 있는 내면성의 특질까지도 설명하려 했다. 들뢰즈도 의미와 논리에서 알튀세와 유사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들뢰즈의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사건이나 이마주 등으로 이해되는데 사건 이전에 그 위상이 복수적이고 계기적이며, 사건으로 인해 영역의 변위가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과 의미는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동시에 발생한다. 건축에서 다양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 중첩은 유효하다. 중첩은 건축과 사회성과의 상관성, 건축이 시대를 표상해야하는 표현의 다양한 침적층을 구축해내는 수단이다. 매스의 포개어짐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다양성과 다이내믹은 의미의 비약을 전의법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중



첨되어진 형태는 새로움의 부과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며 좌표화 되지 않고 계기적 비약과 진화의 연속적인 생성을 수렴한다. 대학과 사회의 교환과 매개의 모든 네트워킹을 기술하며 새로운 양태를 재구성하는 중첩은 다양성이 설명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다양성을 지시한다. 이 대학 형태구성은 저층부와 고층부가 45°의 형태가 포개어져 중첩된 구조이다. 이것의 의도는 롤랑바르트가 텍스트를 지칭하면서 그 작품의 깊이는 다양한 층리 사이의 유기적 관계들에 있으며 그 관계는 다양한 중첩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은유적이고 환유적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무한한 변환망이야말로 텍스트의 진정성이라고 했던 그의 말로 귀결짓고자 한다.

### 뉴 밀레니엄 에테르

고층부의 큰 접시 모양의 구조물은 무엇이나고 많은 질문을 받곤 한다. 건물명이

밀레니엄 센터이다보니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고 대학의 미래 지향성을 대변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적 구조물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 한 것이다. 뉴 밀레니엄은 전자시대와 디지털 환경일 것이다. 전자시대의 미학에서 큰 특징을 꼽으라면 아우라의 부재일 것이다. 예술에서 원본성, 유일무이한 일회성의 개념이 복제시대예술에서 부재한 것은 당연한 것 인지 모른다. 벤야민은 기술 복제시대의 생산구조 변화에 의해 예술개념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 바가 있다. 사라져가는 아우라를 상기시키고 건물의 상징을 표현할 그 무엇이 예측된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미지화해서 기억한다. 또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미지화해서 수용하고 이미지로 사고하고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더 빠르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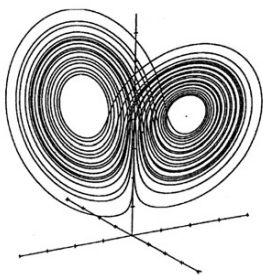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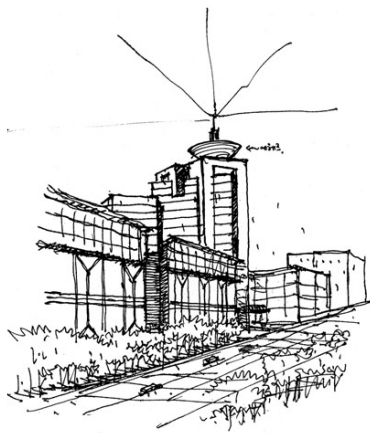
전자 시대적 현존성의 이미지로 원반모양을 차용했다. 원반모양은 하늘 향해 열려있

다. 상상력의 여러 모양을 허락하고 신비적 영기와 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 기하학적 특징에서 다분히 아우라적인 구조물이다. 상부로 열린 상층의 접촉은 무한한 에너지를 위로 발사하고 표면의 반사는 본질적인 방식에서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준안정성을 스스로 취하는 동력학적 불안정적 구조(하부가 좁게 되어짐)는 오히려 더 다이내믹을 산출한다. 위로 열린 이 원반의 역동적 에테르는 이 대학의 과거와 외향적 지향성의 미래가 만나는 곳이다.

### 비선형 어트랙터

외부공간에서 야외극장은 다분히 어트랙터(attractor)이다. 이 어트랙터는 원이 진화된 타원형의 비선형적 구조이다. 어트랙터는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운동과 끊임없이 자신을 되풀이 하는 운동을 나타내는 고정점(fixed point)과 한계 사이클(limit cycle)을 일컫는 말이다. 어트랙터는 끝개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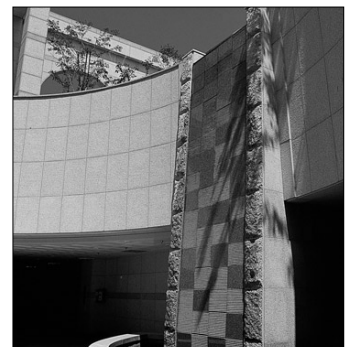
로렌츠(E. Lorenz)의 끌개. 대기의 변화 모양을 3차원 공간에 그린 것이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일정한 법칙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무질서하면서도 법칙성을 감지케 한다. 이 그림은 결코 두 번 다시 같은 궤도를 돌지 않으며, 영원히 변화하는 카오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위의 초기치에서 출발한 점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두 개의 소용돌이를 만들면서 단 한 번도 겹치는 일없이 영원히 이어진다. 한쪽의 소용돌이를 돌면서 진폭은 서서히 커지는데, 어느 순간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쪽의 소용돌이로 옮겨간다. 여기서도 몇 번씩 돌다가 갑자기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나 '계' 전체는 완전한 무질서는 아니다.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얽혀 있는 것이다.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효과가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생긴 로렌츠의 끌개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즉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위상학적 개념이다. 끌개는 현대과학의 가장 강력한 창작물 중 하나인 위상공간에 존재한다. 끌개가 중요한 것은 많은 물리적인 체계에서 초기 상태로부터 끌개까지 도달하는 과도기적 운동은 지극히 짧은 순간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의 움직임을 고찰할 때 우리들이 보는 것은 이미 끌개에 도달 했거나 또는 끌개에 거의 가까워진 체계의 행동이며 체계가 아직 끌개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운동은 이미 끌개의 성질에 지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외극장은 대학 외부공간중에 끌개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끌개는 정형을 깬 비정형적 구조를 취한다. 타원형의 비선형적 구조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또한 무질서 이면서도 법칙성을 감지케한다. 이 기묘한 끌개는 로렌츠(E. Lorenz)의 나비날개 도상에서 잘 알 수 있다. 로렌츠의 끌개가 규칙성과 불규칙성이 상존하고 그의 기후 이론인 나비효과를 실제 대기를 모형화해서 수백만개의 변수를 포함시킨 기후모형(Toy)의 결과물이다. 한국

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며칠 후 뉴욕에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의 로렌츠 끌개는 비선형의 아름다운 형태이다. 아외극장은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되 획일화 시키지 않고 복잡성이 공존하되 질서를 깨지 않는 위상학적 끌개와 같은 학생들의 매력적인 어트랙터(attractor)이다.

### 시간과 문화의 축제

대학문화와 시간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시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카이로스(Kairos)와 크로노스(Chronos)로써의 시간 이해이다. 카이로스가 질적인 시간 이해라면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 이해이다. 그러나 카이로스과 크로노스는 서로를 향해 운동을 한다. 크로노스는 실존적 카이로스로 운동하고 질적 충만한 시간으로써 카이로스는 객관화된 크로노스로 운동한다. 시대적 환원과 시간의 재현은 그 역사의 되돌아감의 회귀에서 가능할 것이다. 대



학의 신입생은 대학이란 가입과 통과 의례적 경계를 통해 매년 축제의 시간을 경험하며 대학문화의 객관화된 크로노스로 운동한다. 대학문화는 사회적 유산과 전통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의미체계로서 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 양산되고 특정 시간 내의 사회적 행동양식에 의한 삶의 방식이며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역동적 조절과정으로 사회적 제도의 상호 연결체계로서 삶을 계획하는 것이다. 또 축제란 자기 삶의 본질을 찾고 긍정하는 행위이다. 축제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긍정해야 하며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긍정이 요구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방식을 특징짓기 위해 어떤 특정한 날과 시합의 존재, 즉 축제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 날의 존재에서는 날이 항상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기만 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현전이며 동일한 것의 임재라는 것이다. 대학의 축제는 동일한 날이 매년 반복된다. 그러나 매년 다르기 때문에 구하고 사라지기만 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현전이며 동일한 것의 임재라는 것이다. 대학의 축제는 동일한 날이 매년 반복된다. 그러나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 의미에서 시간적이다. 그 존재는 생성중에 실재이다. 가다머는 축제를 주관적 성격을 지니거나 축제의 존재가 경축하는 사람들의 주관성에만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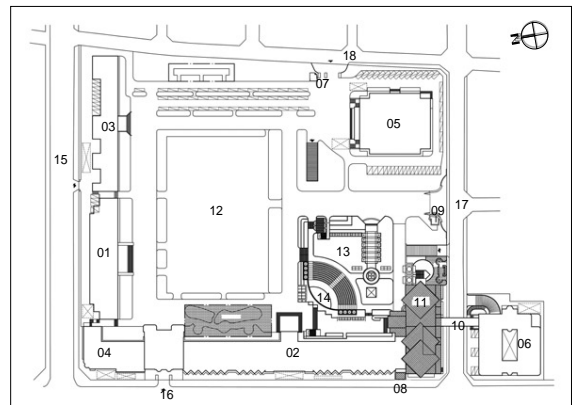
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경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연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극의 존재는 관객이 가진 체험의 교차점이 아니라 반대로 관객의 존재는 연극에 참가함으로써 규정된다. 시간의 구조를 참여와 축제로 이해하는 것은 대학문화에 중요한 활력을 부여한다. 외부공간의 공간구성은 시간의 구조와 참여가 유기적으로 경험되는 구조이다. 야외극장은 축제와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고 광장은 시간과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 옴팔로스(omphalos)

도심지 대학들의 공통적 특징은 대학의 건물이 형성되어가는 순서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체육관도 그 부분의 마지막 부위이며 결국 운동장을 에워싸는 형태로 귀결된다. 이 부분은 기존의 주출입구이며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학생들의 동선이 가장 빈번히 접하는 곳이다. 기존의 체육관은 이미 슬럼화되어 성능개선이 요청되는 곳이므로 체육관을 넓히고



- 01. 본관
- 02. 한길관
- 03. 공학관
- 04. 예지관
- 05. 체육관
- 06. 도서관
- 07. 경비실
- 08. 정암실
- 09. 수위실
- 10. 연결통로
- 11. 밀레니엄센터
- 12. 운동장
- 13. 총합광장
- 14. 야외극장
- 15. 복문
- 16. 서문
- 17. 정문
- 18. 동문



배치도



그 주위를 증축하는 개념이다. 전체대학의 각 건물군에서의 시점이 한 곳에 모아지는 코너 부위이므로 전체부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시점이 한곳에 모아지므로 이 다양한 시점을 통분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옴팔로스는 델 포이의 주민들이 부르는 환돌이었고 이를 대지의 중심이라 여겼다. J. H 해리스는 옴팔로스는 생성의 중심이라 했고 로셔(Roscher)는

세계의 중심이라 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과 양심의 회복을 보증하는 것이다.

옴팔로스는 자기영역을 중심화하는 원의 속성을 가진다. 공간의 실존적 체험에서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가장 완전하며 영원한 곳으로서 이상적 형태는 예외는 있겠지만 원형일 것이다. 원의 도상은 중심을 확연히 인식시키고 그 주변영역과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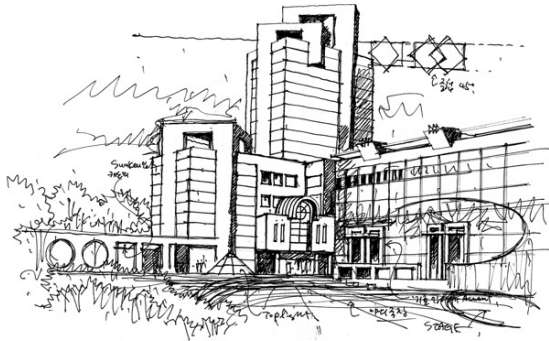
어 전체를 하나로 통분시키는 특징이 있다. 부지의 코너와 사각지대를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사각형 박스공간을 성능 개선하는 기능과 시각적 측면을 대응 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옴팔로스를 차용했다. **■**

한길 밀레니엄센터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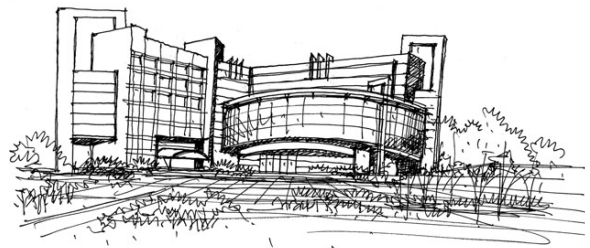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삼곡동 424, 454-3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44,729.90㎡  
 건축면적 1,337.13㎡  
 연면적 24,207.59㎡  
 구조 SRC 구조  
 외부 마감 T30화강석, T16파스텔복층유리

체육관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삼곡동 424, 454-3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지역  
 대지면적 44,729.90㎡  
 건축면적 1,949.19㎡  
 연면적 10,015.21㎡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 마감 T30화강석, T3알루미늄쉬트



한길 밀레니엄센터



체육관

